



[뉴스] FTX 붕괴 여파 가상자산 규제 고개드나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42.90 (-34.55)	코스닥	737.54 (-5.56)
금리(미국채 3년)	3.804 (-0.004)	환율(원/달러)	1339.10 (+14.10)(17일)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7일 서울 강남구 현대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이 메트로신문 수능 특별판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전년比 국어 쉽고 수학은 비슷 선택과목 따른 유불리 불가피

2023 수능 총 50.8만명 응시 31%가 N수생... 26년래 최고

코로나19 상황 속 세 번째, 문·이과 통합 형태로는 두 번째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이 17일 치러졌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50만8030명으로 전년보다 1791명 감소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5만 239명(68.9%), 졸업생 등은 15만7791명(31.1%)으로 최대 'N수생'이 몰려 26년만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2400여명은 전국 110개 학교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과 25개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장애 등으로 시험편의를 제공받는 706명도 도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문·이과 통합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과목과 선택 과목 간 유불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으나 '물수능'은 아니었고, 수학은 어렵게 출제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올해는 국어보다

수학의 변별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지만 국어에서도 이와 강세가 예상됐다.

국어 영역의 킬러 문항으로 17번이 꼽혔는데, 입시 전문가들은 단순 과학 지문이 아닌 사회과학 영역의 통계 분석인 '최소 제곱법' 내용이 결합돼 있어 독해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금년도 수능 역시 선택과목 간 점수차는 불가피하고, 점수차는 지난해 2점보다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수능 2교시 수학 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평 수준과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중간 수준의 문항은 많았으나, 최고난도 문항은 많지 않아 최상위권 변별력은 약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통과목은 여전히 어렵게 출제됐고, 선택과목 난이도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처럼 문이과 유불리 구조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신하은 기자 hys@

사우디 40조 오일머니 풀었다 한국과 26건 초대형 사업 협력

빈 살만 '선물 보따리' 들고 방한 韓정부·기업들과 계약·MOU 체결 해외건설 '제2 중동붐' 기대감 ↑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9조 투자 삼성물산 등 5개社 네옴시티 참여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최대 수십조원에 이를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 협력에 동시다발로 시동을 걸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 아라비아 투자부와 투자포럼을 통해 26건에 대한 사업 관련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이른바 '선물 보따리'를 쏟을 것. 이번 포럼에선 주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사우디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들과 총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국내 기업들에 다양한 사업을 맡기며 새로운 '중동 붐'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3면>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는 총 6건이다. 우리 기업과 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함께 걸으며 환담하고 있다. /뉴스1

우디 기업·기관 간 협력 계약과 MOU는 총 17건이 체결됐다. 국내 외투기업인 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 간 계약도 3건 이뤄졌다. 총 26건 협약이 이뤄진 셈이다. 각 협약의 사업 규모만 조단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EPC 계약'은 9조원 대이다.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인 대규모 석유화학사업 '샤힌 프로젝트'다. 에쓰오일과 국내 건설사 간에 체결됐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등 5개사가 그

린 수소·암모니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다. 예정 사업비가 약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속철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대차그룹 현대로템이 철도 협력 MOU를 맺고 고속철과 전동차, 전기기관차 구매 계약과 현지 공장 설립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추후 고속철 수주를 보격화하면 사업 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면에 계속>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경제 '빨간불'에도 민생보다 정쟁

표류하는 '예산국회'

각종 쟁점현안 대치 심화 사상 초유 준예산 우려도

요즘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단어는 '위기'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 위기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근 2.7%로 소폭 낮춰 발표했다. KDI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2.2%)보다 1.0%포인트 올린 3.2%

로 조정했다. <관련기사 4면>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3일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에게 최근 경제 상황과 2023년 경제 전망을 물어본 결과, 52.7%가 '2008년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당 조사에서 '2008년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27.1%, '1997년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응답은 18.7%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한 응답도 6.9%였다.

이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주

된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등 전 세계적 경제·정치리스크(57.4%)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산업 구조(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7.4%)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정과제 추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등에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4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야, 내년도 경사노위 운영비 약 1억 원 삭감 결정 /사진 뉴스1
▲ 북한, 동해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한미 방어훈련 대응

▲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북한 비핵화 지지
▲ 통일부 "한반도 긴장 고조 당사자는 북한" 강조



▲ 한덕수 총리,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 민주당, 이해 못할 지역 화폐 예산...복구 요구 /사진 뉴스1